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5

▶ 56회 예고
아쇼까는 건강이 악화된 빈두사라왕을 겨우 알현한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 앞에서 친위대장을 불러 수시마를 귀국시키라고 명한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 처음으로 동생 비가따쇼까도 만난다.



아쇼까, 웃자인 데비와 헤어지다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특사 일행이 웃자인에 도착했다. 빈두사라왕의 측근인 특사는 빠딸리뿌뜨라 외성을 축조하는 데 총책임자였다. 그런데 그도 역시 칼라따까 수상에게 매수된 인물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총애하는 탁실라 부왕 수시마가 특별휴가를 받아 왔을 때 칼라따까의 지시를 받고 내성과 외성을 드나드는 수시마 가족과 측근 신하들을 일일이 칼라따까에게 구두로 보고했던 것이다. 웃자인에 도착한 특사는 왕궁 접견실에서 아쇼까 부왕을 만난 뒤 바로 빈두사라왕의 명령서를 내밀었다.

"부왕이시여, 대왕님의 명령서입니다."

대왕의 명령서에는 아쇼까가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1년 동안 특사가 부왕을 대신하여 웃자인을 통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왕님은 안녕하시오?"

"지병으로 편치 않으십니다."

특사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칼라따까가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특사를 신뢰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대왕님을 문병하고 싶었는데 특별휴가를 받아 다행이오."

"대왕님께서는 부왕님을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수시마 형님이 계신다면 더 위로를 받으시겠지요."

특사는 문득 칼라까따가 "대왕님은 수시마 왕자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하지."라는 말이 떠올라 잠시 침묵했다.

"수시마 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계신 동안 아무 일이 없었소?"

"왕자님이 빠딸리뿌뜨라에 남아야 한다고 빈두사라 대왕님께 건의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 왕자님께서는 탁실라로 떠나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칼라따까 수상이나 라다굽따 제관이었소?"

"그분들은 아닙니다. 수시마 부왕비님을 따르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아쇼까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형수인 부왕비를 부추기어 수시마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신하들이 병고에 시달려온 빈두사라왕 주변에 있다는 특사의 보고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아직 건재한데 있을 수 없는 망측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았던 수시마와 자신을 이간질시키는 모사이기도 했다. 아쇼까는 장자인 수시마가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형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소."

"그렇습니다. 부왕비님이 대왕님의 총애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아쇼까는 자신을 늘 이중적으로 대하는 형수를 좋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혹시나 수시마가 능력이 출중한 아쇼까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고 경계했던 것이다. 수시마 역시 아내의 이간질 때문인지 아쇼까를 어딘지 모르게 멀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수시마 형에 대한 아쇼까의 호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형수님은 욕심이 많은 분 같소. 그러나 수시마 형님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없으니 상관없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수시마 형님을 따랐소. 수시마 형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나는 도울 것이오."

"두 분 사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왕비님을 부추기는 일부 신하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쇼까는 특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칼라따까의 심복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수시마와 부왕비, 그의 일파를 비난하는 어조로 보아 칼라따까의 측근임이 틀림없었다. 칼라따까가 그를 웃자인 특사로 보낸 이유도 분명했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웃자인을 잘 통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터였다. 아쇼까는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동생 비가따쇼까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머님과 동생도 잘 있겠지요."

"다르마 왕비님은 부왕님을 보시기만 해도 병석에서 바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비가따쇼까 왕자님도 잘 계십니다. 특히 대왕님께서 왕자님을 총애하십니다. 부왕님께서 특별휴가를 받은 것도 비가따쇼까 왕자님께서 대왕님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아, 비가따쇼까 동생이 더욱 보고 싶소."

"아상디밋따 부왕비님도 잘 계십니다."

특사는 아쇼까 아들인 꾸날라의 안부는 말하지 않았다. 꾸날라는 첫째부인 빠드마바띠가 낳은 아들로 그녀가 죽자 둘째부인 아상디밋따가 키웠는데, 꾸날라는 지금 빈두사라왕의 지시로 탁실라에 가 있었으므로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쇼까가 꾸날라를 들먹였다.

"꾸날라는 열두 살이 됐겠군. 열두 살이면 말도 타고 활도 잘 쏘겠지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꾸날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승마나 활쏘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군."

특사는 아쇼까가 꾸날라에 대해서 더 묻지 않자 안도했다. 잠시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는 척하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특사께서는 오늘은 푹 쉬시오. 내일 이곳 관리들에게 공무를 인계받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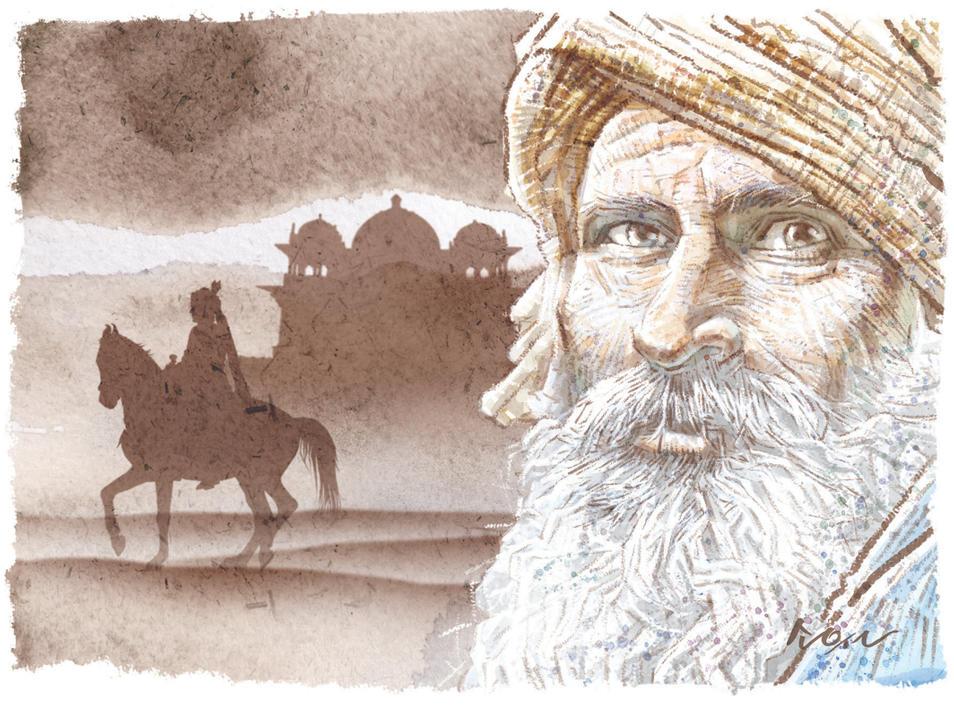
"부왕님, 천천히 인수해도 됩니다."

"아니오. 대왕님의 명이 내려졌으니 나는 모레라도 빠딸리뿌뜨라로 떠날 것이오."

"알겠습니다. 부왕님을 대신하여 웃자인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담마팔 사문도 특사 일행과 함께 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사문께서는 데비 부왕비님의 편지를 받고 왔기에 부왕비님 별궁으로 먼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문이 왔으니 산치 절에 수행자들이 모이겠군."

"사문께서는 내일쯤 왕궁으로 들어와 부왕님께 면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소. 먼 길을 왔으니 오늘은 돌아가서 쉬시오. 내일 아침에 웃자인 관리들을 불러들이겠소."

특사가 접견실을 나간 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데리고 데비 별궁으로 말을 타고 갔다. 경비대장이 앞서 달려 나가자, 경비병들이 재빨리 아쇼까가 탄 말을 앞뒤로 호위했다. 시프라강 너머에서 뿌연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회오리바람은 버섯 모양의 흙먼지 기둥을 일으켰다가는 허공에서 스러지곤 했다. 흙먼지는 강을 건너와 흩어지기도 했다. 사라졌던 경비대장이 다시 나타나 아쇼까 옆으로 왔다.

"부왕비님 별궁에 여러 마리의 말과 마차가 있습니다."

"담마팔 사문도 거기 있다고 들었소."

아쇼까가 흙먼지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마차와 여러 마리의 말이 있다고 해서 경계할 일은 아니었다. 담마팔 사문이 데비 별궁으로 왔다는 소식에 데바와 데바부인, 베디샤나가르 농원의 집사 타리쉬 등이 와 있었다. 타리쉬가 온 이유는 담마팔 사문을 산치 절로 모셔가기 위해서였다.

데비 별궁 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이 아쇼까를 맞이했다. 타리쉬만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쇼까가 손짓을 하자 의자에 앉았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에게 먼저 말했다.

"사문이시여, 반갑소. 비가따쇼까 동생을 가르치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총명한 비가따쇼까 왕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소승으로서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산치 절에 머무신다고 하니 누구보다도 데비 부왕비가 좋아할 것 같소."

"저도 고향 절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직 데바 수장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담마팔 사문이 아쇼까에게 합장한 뒤 접견실을 나갔다. 타리쉬는 벌써 말 등에 앉아서 담마팔 사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이 말 등에 오르자, 그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시프라강 쪽에서 올라왔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담마팔 사문을 향해 공손하게 합장했다. 데비를 따라 산치 절에 몇 번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므로 합장 인사가 자연스러웠다.

마힌다와 상가밋따는 곧 데비 별궁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 한가운데 앉아 있던 아쇼까가 마힌다와 상가밋따를 보더니 대견한 듯 미소를 지었다. 마힌다가 먼저 아쇼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이어서 상가밋따도 마힌다와 같이 고개를 숙였다.

"오! 마힌다야, 상가밋따야. 너희들을 잠시 보지 못할 것 같구나. 나는 1년 동안 빠딸리뿌뜨라에 가 있을 것이란다."

"저는 걱정 마셔요."

아홉 살의 마힌다가 말했다. 그러나 일곱 살의 상가밋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가 보고 싶어요."

"특별휴가를 받아 가는 것이니 가족과 함께 갈 수는 없단다."

데바와 데바부인, 데비는 담마팔 사문에게 아쇼까의 특별휴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므로 모두가 담담하게 듣기만 했다. 데바 상인수장이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데비도 갑니까?"

"마힌다와 상가밋따가 아직 어리니까 웃자인에 남아 있어야겠지요."

사실이었다. 두 남매는 지금도 데비에게 산스끄리뜨어와 베다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다. 왕족으로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데비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만 이곳을 떠나 날마다 산치 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마팔 사문도 오셨으니까요."

"베디샤나가르 농원에 가 있겠다는 것이오?"

"이곳 별궁에 있기보다 농원으로 가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구요."

"아,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소."

데바부인이 데바를 쳐다보면서 아쇼까에게 부탁했다.

"부왕이시여, 빠딸리뿌뜨라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데비와 마힌다, 상가밋따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쇼까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윽고 데바가 부인에게 접견실을 나가자고 눈짓을 주었다. 데바부인이 마힌다와 상가밋따에게 말했다.

"잠시 나가 있자구나."

"예, 내일 또 오겠습니다."

마힌다가 의젓하게 말했다. 데비는 상가밋따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는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참았던 눈물이었다. 아쇼까가 데비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말했다.

"1년이란 시간은 우리에게는 결코 길지 않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빠딸리뿌뜨라는 이곳과 다를 거예요. 화려하고 분주한 그곳에 가시면 저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한시도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소."

그래도 데비가 다시 눈물을 흘리자, 아쇼까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오."

아쇼까는 데비를 더욱 힘껏 껴안았다. 그제야 데비는 눈물을 멈추고 안심했다. 그 순간 데비는 산치 절에서 아쇼까를 처음 보았던 날의 가슴 두근거렸던 황홀한 순간이 떠올랐다. 데비는 아쇼까가 준 반지와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반지와 목걸이를 손에 쥔 데비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아쇼까의 약속을 믿었다.〈계속〉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나길 80-42